

대등·협력적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과제

Table of Contents

I. 문제의 소재

- 1) 문제 제기
- 2)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의 소재
- 3) 중앙집권 의존적 재정구조의 문제점
- 4) 역대 정부 재정개혁의 한계

II. 분권형 재정개혁의 기본방향 및 전략

- 1) 자주재원을 기본, 재정조정재원으로 보완
- 2) 재정중립형 통합적 재정개혁
- 3) 국민공감형 재정개혁

III.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 1) 세원이양 및 과세자주권의 확대
-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 3) 중앙지방간 협의체제 법제화

IV. 나가는 말



I. 문제의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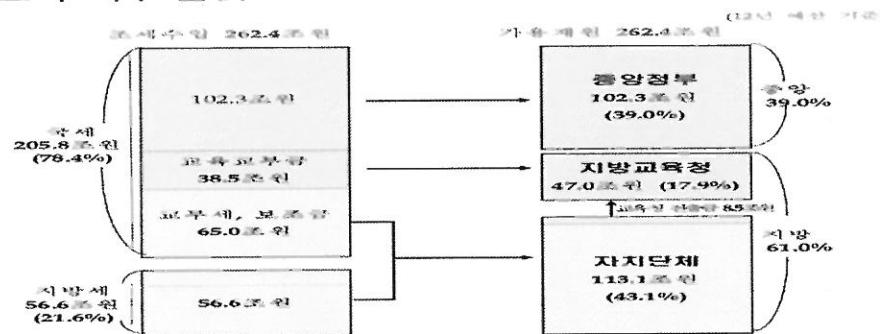
1) 문제 제기

- 지방자치와 분권은 21세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국가운영전략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무엇보다 자치와 분권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
 -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지방분권의 수준이 미흡한 편인데, 특히 재정분권의 수준이 낮아 자치를 위한 자주적 재정기반 촉약
 -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
- 지방자치 부활 이래 지방재정 기반 강화와 재정분권을 위한 개혁이 나름 추진되었지만 근본적인 재정개혁은 진전되지 못한 채 지방세입 감소에 대한 재정보전대책으로 일관, 지방재정의 자주성은 개선되기 보다 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개혁과제 및 대안의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종전에 추진된 지방재정개혁의 실패 요인을 고려한 개혁의 기본방향 및 전략의 설정이 함께 요구되는 단계

I. 문제의 소재

2)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의 소재

- 자체 세수와 지출 간에 큰 격차가 발생, 그 격차를 중앙정부 재정이전으로 보전함으로써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 2인데 최종적인 지출(지방교육재정 포함)은 4 : 6으로 역전
- 60% 이상의 재정기능을 수행하면서도 20%의 세원만 배분, 나머지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층당
- 지방정부 세입과 세출 양 측면을 통제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 행정기관화, 집권시대의 재정적 틀에는 변화가 없음
- 중앙지방 간 세수·세출 역전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나 그 격차의 크기나 재정 의존도는 OECD 주요 국가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고 지방정부 세수와 지출 간의 괴리는 점차 더 확대,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 심화



I. 문제의 소재

3) 중앙집권 의존적 재정구조의 문제점

- 과세자주권에 대한 통제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이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시스템의 특징을 보임
- 중앙집권적 의존적 재정구조의 문제점
 - 지방세출 규모에 비해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과 소득·소비과세의 국세 편중으로 지방 재정 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세수의 빈약성을 보임
 -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정부 전체 절반 이상 차지
 - 재정적 자율성의 제약과 자치 기반의 약화를 초래함
 - 지방공공서비스 편익과 지방세 부담 간의 괴리 확대, 지방세가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가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의식 희박, 도덕적 해이 및 재정 감시 소홀 등으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야기함
 - 국세 세수 증가율이 문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재정이전의 여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권적 재정시스템의 지속 자체가 곤란, 중앙정부 재정부담의 지방 전가로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I. 문제의 소재

4) 역대 정부의 재정개혁의 한계

- 지방자치 부활 이래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포함한 재정분권정책을 나름 대로 추진하여왔으나 전반적으로 성과가 부진, 특히 재정분권개혁은 더 부진한 양상
-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형태로 옹두사미형 재정분권개혁 반복
-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은 미룬 채 중앙정부 재정조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재정보전대책으로 일관
- 중앙지방 간, 지방정부 간 갈등 극복하지 못한 채 기존 체제의 틀 내에서 미세조정으로 통합, 묵시적 타협의 산물
- 재정분권개혁 부진의 요인
 - 세원이양에 따른 지역 간 세수 불균형 심화 우려
 - 이해관계의 복잡성, 합의 형성의 어려움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분권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실천 전략
 - 중앙·지방 간, 지방정부 간 합의점 확대를 위한 대안과 전략 모색
 - 분권개혁 지지 세력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모색

II. 분권형 재정개혁의 기본방향 및 전략

1) 자주재원을 기본, 재정조정재원으로 보완

- 세입 및 세출의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고 지역간 표준적 행정서비스 균등화를 위한 재정조정으로 보완
- 일반 이전재원주의의 한계
 - 세입의 자치가 없더라도 지출 용도를 특정화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반 이전재원으로 세출의 자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
 - 지출 용도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 세출 규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셈
 -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부족하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될 공산이 커짐
 - 수익과 부담의 일치를 전제로 하는 자기책임성, 지방재정에 주민의 관심·통제 증대, 재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중앙정부의 재원보장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주의
 - 자주재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 최소 행정 수준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에 의해 보완
 - 중앙지방 간 세원배분의 근본적 재편과 함께 재정적 보완장치 정비

II. 분권형 재정개혁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재정중립형 통합적 재정개혁

- 재정중립형 재정개혁

- 중앙·지방 간 합의점 확대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조세 부담률과 중앙 지방 간 최종 세출 배분 비율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혁안 설계

- 통합적 재정개혁

- 국고보조사업의 폐지·축소, 세원이양, 지방교부세 조정 등 상호 밀접히 연관된 제도개혁을 통합적·일체적으로 논의, 추진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책임에 상응한 적정 지방세수의 확충

- 지방정부 역할의 확대·변화를 고려한 소득·소비과세 세원 확충
- 세수편재 완화형 세원배분
- 과세자주권의 신장

-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및 포괄보조금화

-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II. 분권형 재정개혁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국민공감형 재정개혁

- 올림이 없는 공허한 외침, 국민공감대 미형성의 요인 성찰
- 재정분권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체감성 제고
 - 기존의 중앙집권적 의존적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폐해는?
 - 재정분권을 하게 되면 국민생활 및 재정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 재정분권과 21세기 국가 경쟁력 향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논거를 제시하고 재정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제를 발굴·홍보
- 재정분권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개혁안 설계
 - 지방정부 자치 역량,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포함, 수신제가형 개혁
 - 지역간 재정 불균형 완화, 최소화를 고려한 세원배분 및 보정장치 마련
- 주민참여형 분권개혁 추진

III.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Step 3

1) 세원이양 및 과세자주권 확대

-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 중심의 세원이양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국세 위주의 세원 배분 구조의 개선이 요구
 -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세출의 비중 4:6에 균접할 수 있도록
 -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세수 확충 효과를 고려하여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의 세원이양
 - 중앙지방간 세원공유방식 적극 활용
 - 지역 간 세수 불균형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목 선정 및 보완장치 마련
- 지방소득세의 일정 단일비례세율제도(3% 이상) 도입
 - 국세 소득세와의 세수 교환을 통한 세원이양 효과와 함께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의 해소와 응익과세의 원칙을 강화
- 지방소비세 단계적 확충과 함께 세수배분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교부세적 성격 완화 및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세수격차를 완화하는 조치 필요
- 지방세수 증대와 함께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과세자주권 신장
 - 선택적 과세제도의 적극 활용
 -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정비

III.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Step 3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통합 정비
 - 세입분권의 진전이 지역발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완충기능 강화
 - 현재 복잡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수단들 간 역할분담의 재설계를 비롯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이 요구됨
-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원보장 기능 강화
 - 재원부족액 보전율 향상, 교부세 산정방식의 합리화 및 분권교부세의 개선
-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 및 포괄보조금화
 - 유사증복사업, 영세사업, 지역동화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 포괄보조금화
 - 국고보조사업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중앙통제 축소, 지방정부의 재량성 확대
- 지역간 재정균형·균형발전 장치 강화
 - 현재 재정균형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부동산교부세 및 광특회계의 일부 재원을 통합,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재원으로 활용방안 검토

III. 제도개선 과제 및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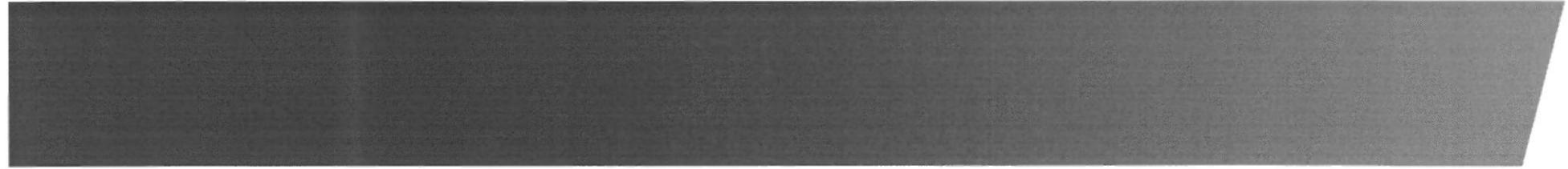
Step 3

3) 중앙지방간 협의체제 법제화

- 대등·협력적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의체제 법제화
 - 중앙정부 일방적인 지방세제 개편 결정과 사후 임시방편적 세수보전대책의 잘못된 관행 개선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제도 도입·변경 시에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법제화하여 지방의 국정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법률안 및 예산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법안, 예산 심의 시 반영함

IV. 나가는 말

-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임
- 우리나라는 재정분권의 수준이 매우 낮은 중앙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구조로서
 - 자치를 위한 자주적 재정력 확보 곤란,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약, 비효율성 및 책임성 저하의 문제를 야기시킴
-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을 낮추고 세입·세출 자기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재정지출책임에 상응한 자주재원의 확보와 함께 재원보장·재정균등화를 위한 재정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보완을 통한 대등하고 협력적인 재정관계의 정립이 요구됨
- 재정분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분권개혁실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중앙권력의 반대논리의 극복과 지지세력의 확산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재정분권의 논리 및 합리적 대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민, 국민들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는 개혁의제의 발굴·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담론의 형성과 확산 노력이 요망됨



감사합니다